취업준비 이렇게

체계적 준비가 바늘구멍 뚫는다

취업특집 …하반기 취업준비를 위한 도움말

한발 앞선 체계적·효율적 준비 우선

진로선택 결정은 결국 본인 스스로가

최근 국내외 경기가 수년동안 침체되면서 기업은 신규채용 규모를 감소시키고 있고 이에 따른 부산물로서 지난주 신문보도에 의하면 대출 미 취업자의 숫자가 14만명에 이른다고 하니 대졸 취업난은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면서 계속 될것으로 예상된다. 열악한 취업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한발앞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준비를 해야만 한다.

1. 진로방향 결정 및 학점관리

진학이나 유학 또는 취업, 어느 한방향을 결정했더라도 꼭 따라다니는 것이 대학 4년간의 성적표이다. 취업시 1차서류전형의 과정중 전학년 성적이 B학점 이상이 아니면 통과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제학시 B학점 이상의 점수를 받기는 결코 어렵지 않지만 무관심속에서 소홀해 질 수 있는 부분이고 본인의 전학년 평점이 일생을 따라다님을 인식하고 학점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2.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한 정보수집의 생활화

학과 사무실, 교수연구실, 취업정보실 등에 설치된 PC를 통하여 매일 매 시간 전해오는 구인정보를 분석하고 본인이 원하는 기업을 발굴한다. 그리고 지난해 본교에서 자체개발한 취업정보 전산 프로그램인 '이정표' 활용의 생활화가 되어야 한다.

이정표는 (1)본교에 구인 의뢰한 기업의 접수 일자와 제출기한 별로 정보검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업종, 채용구분, 전형방법, 대학, 학과별로 검색이 가능하고 (2)6백여 기업의 일반 채용정보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회사의 기업정보를 검색하고자 할때 회사명만 입력하면 검색이 가능하며 (3)취업대상자 개인별 기록카드는 성적, 외국어정도, 희망기업 및 근무부서, 희망 근무지역 등의 자료가 입력되어 있으므로 기업에서 특수 제한조건의 취업추천 의뢰를 해오더라도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없고 (4)기존취업자 관리에서 금년부터 졸업한 동문들의 취업현황 자료를 입력해 놓았기 때문에 특정 회사의 채용정보를 알고자 하면 본교출신 동문이 근무할 경우 근무부서, 연락처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설계된 종합 취업프로그램이다. 사용방법은 단순 KEY 이 외국어 실력임을 인식하고 꾸준한 노력만이 가능케함을 알아야 한다. 기업에서입사원자 평가시 평가점수의 배점중, 자격증 소지여부에 대한 비중은 높을뿐 아니라 전문화, 세분화되어 있는 직업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 현대인이라면 자격증취득은 당연히 우선 염을 인식해야 한다.

3. 외국어실력 배양 및 자격증 취득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이 가속화되고 외국과의 합작 사업이 증가하면서 각기업들은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인재를 원하고 있다. 경쟁에서 가장 비교되기 쉬운 부분이 외국어 실력임을 인식하고 꾸준한 노력만이 가능케함을 알아야 한다.

4.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취업을 향한 첫걸음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자신이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첫인사인 만큼 정성과 성의를 다하는 마음자세를 가져야 한다. 작성요령과 사례들은 취업정보실에 비치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입사지원장기 기록은 취업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병행하여 기록한다.

5. 비 인기학과 및 여학생 취업

비 인기학과 학생과 여학생에게는 복수전공 이수와 복을한 외국어 조사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컴퓨터 사용에 익숙치 않은 사람도 전혀 어려움이 없다.

6. 유망중소기업 발굴

실속있는 중소기업이란 (1)주 생산품의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가를 알아보고 (2)첨단상업과 연계 여부 (3)병역특례업소의 지정 여부 (4)경영자가 꿈과 시를 확실히 구분하는지 여부를 살펴서 평가의 기준을 삼는다.

각회사의 재무고조에 대한 기준은 증권회사에서 발행된 투자정보를 이용하면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금년도 취업정보실에서는 유망중소기업 발굴에 사업목표를 두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7. 취업정보실 이용 및 취업상담

취업희망카드를 제출하면서 상담교직원과 진로상담을 통하여 개인별 취업성향과 진로방향을 숙의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며 취업정보실에 비치된 각기업별 기출문제에서 출제경향을 검토한다.

진로선택에 있어서 취업대상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결정은 본인 개개인이 스스로 하는 것이며 취업정보실에서는 그 결정에 도움을 주는 보조역할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최 상 익
〈수원 취업정보실 주임〉

취업전략論

일은 책임인 동시에 하나의 생명체

사회진출전 보다 많은 노력 과정 중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묻는다면 '일'로 산다고 얘기하고 싶다.

일 속에서 기쁨과 좌절감, 성취감을 느끼고 덕을 베풀거나 인류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게 된다. 사람과의 만남이나 인연 역시 이 속에서 둥지를 틀고 씨앗을 뿌리게 된다. 사람이 실존하는 것은 많은 부분이 일의 터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사를 바라보면, 문자와 불이 발견되면서 인류가 행하는 일의 종류와 질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상의 일 가운데 세분화되어있는 직위만도 5만여 가지가 된다고 하니 일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세계는 다원화된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리라.

부모와 사랑으로 잉태된 아이가 모태에서 활발히 움직이거나 때로는 발길질로 어머니를 놀라운 기쁨으로 몰고 가는 것도 그 아이의 연령에서 하는 일이다. 태어나서 울고 열심히 엄마의 젖을 먹거나 우유를 마시는 것도, 세벽이면 일찍 잠이 깨어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는 엄마, 아빠를 깨워대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들의 일이다.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서의 공부, 그 자체도 하나의 일이다.

반드시 보수와 관련된 것만이 일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진출전의 과정에서 보다 많은 땀을 흘린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 공부도 재미가 있다든지 농구를 하면서 땀을 흘리는 것도 일이다. 단지 체력과 시간을 보이지 않는 보수로 받고 쓰고 있을 뿐이다. 노인정에 가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본다면 일은 오히려 정신적 만족도에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라디오 방송국 음악 프로담당 프로듀서가 저녁 11시경에 청취자들에게 들려줄 경음악을 선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중의 하나일 수 있다.

서로의 입장에서 불특정 다수인 청취자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기도 하고 기쁨을 갖게된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해주거나 콘크리트 문화에 지치고 학업에 스트레스를 받은 학생들의 가슴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단한 계층, 그 때의 사회 전체 분위기, 시간대에 조화되는 좋은 곡을 택하기 위해서 고심하는 것은 자기 일에 대한 정열, 청취자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좋은 의미의 욕망이 표출되지 않고는 지속적으로 힘써 가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공동체의 유익', '우리의 선'을 지향하고자 하는 속에 '일'이 살아 숨쉬도록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의 부단한 노력이 쌓여져갈 때 우리 민족은 미래에 비전있는 겨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은 욕망이 부딪히는 현장에 서있다. 욕망이 부딪힘을 두려워해선 안된다. 그러나 그 부딪힘 속에 서로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물이 지켜져야 하고, 도가 지켜질 때 아름다움이 연출될 수 있다.

주부들에게 보다 사랑받는 전자렌지를 만들기 위한 아이템 회의를 하는 사람들의 욕망은 바로 일로 나타난다.

고뇌하는 사람들의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동시대인의 감정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연극 배우의 욕망은 인간본질에 대한 애정 그것이다.

사실 일은 그 둘기가 상당부분 정신의 움직임에서 연유된다. 그러므로 일에 올바로 임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의 기술, 기능을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자체에 내재된 인류와 개인에 주는 의미나 보이지 않는 윤리의식이 먼저 탐구되어야 한다.

즉, 개인용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 제품이 어린이 시력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자기들이 하는 일의 수익성에만 비중을 두기보다 사용자 개인에게 미칠 우려점도 보완해갈 수 있는 자세로 일에 임해가야 한다고 본다. 결국 그런 태도의 사람들이 모인 일터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일은 책임이며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와 같다. 일은 정체되어 있는 현상은 아니며 사람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끊임없이 계발된다.

김 농 주
〈직업 평론가〉

21세기를 대비한 눈을 갖자

한국개발연구원 미래산업특성 요약

다가올 21세기의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첨단산업 기준대 개발, 경쟁이 가능한 반도체, 컴퓨터, 통신 매카트로닉스분야, 재래산업중 한국형 성장 산업분야, 레저, 스포츠산업 그리고 서비스산업 등이 주도하여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미래산업구조의 특성을 다음 6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편집자 註〉

1)공장 자동화로 자본재 산업이 발달할 것이다

기계, 설비 등의 단위 기계들은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기술과 결합되어 전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합리화를 가능케 하여 자본재산업(예:기계,전자,자동차산업)은 전체 제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중 현재의 24%수준에서 50%까지 신장될 것이다.

2)첨단 기술산업의 발전으로 기술 집약형 산업구조가 예상된다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생명공학, 신소재 분야에서의 산업화가 추진되고 우주, 해양, 신에너지 등의 산업화도 가능한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 고도 기술 산업비중은 현재의 7%에서 25%까지 급속히 증대될 것이다.

3)감성 지향적 문화시업이 크게 발달할 것이다

스포츠, 관광 등 레저 관련사업, 노인산업, 첨단 가사기구, 개성화된 제품 등 감성 지향적 문화산업이 각광을 받을 것이며, 문화산업은 전체 내수중 현재 17%에서 24%까지 확대될것이다.

4)국제화가 가속될 것이다

자동차산업에서 이미 각종부품이 범 세계적으로 생산 조립되는 소위 world car처럼 앞으로선, 후진국을 막론하고 새로운 비교 우위에 입각한 국제 분업체제가 크게 확대될 것이다. 이에따라 기계, 전자 등이 65%-75%, 자동차, 조선 섬유 등이 70%이상의 높은 국제분업도를 나타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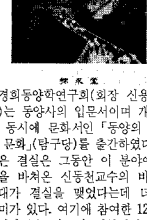
5)전 산업의 정보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컴퓨터, 통신, 소프트웨어 같은 정보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경제활동의 중심이 재화의 생산에서 서비스나 정보, 지식의 생산으로 옮겨지게 되는 정보화 시대가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정보화수준도 현재보다 7배이상 신장될 것이다.

6)서비스산업의 급속한 발달이 예상된다

엔지니어링, 디자인, 광고 등 다양한 서비스산업이 발달하여 전 산업중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현재 35%에서 41%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취재부〉

기획서평 …동양의 역사와 문화



학문의 업적 닦는 신진학자 연구 결과물

경희동양학연구회(회장 신용철교수)는 동양사의 입문서이며 개설서인 동시에 문화서인 「동양의 역사와 문화」(탐구당)를 출간하였다. 이 같은 결실은 그동안 이 분야에 정열을 바쳐온 신동원교수의 바램과 기대가 결실을 맺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여기에 참여한 12명의 집필자들은 본교의 대학원에서 학문적훈련을 받고 이제는 학계에 진출하여 학문의 업적을 닦고 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신진학자들로 이루어 졌다는데 더욱 큰 의의가 있다. 이들은 내가 옆에서 지켜 본 바이지만 남다른 정열을 가지고 자료수집과 연구, 학술세미나와 학술정보교류를 하면서 꾸준히 성장해왔고, 그 과정에서 신교수의 노고가 큰것으로 알고있다. 다시말해 과내에서의 학회가 성장할수 있는 가능성과 모형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본서는 3년전에 계획하여 서로간의 시대분야 배정과 목차의 배정 집필의 필도등에 관해 수차례 협의하였고, 집필후에도 내용을 교환하여 읽으며 통일성을 기하려고 했던 것으로 안다.

책의 시작부분 동양과 아시아의 관계, 동양사의 환경, 동양사회의 특성등을 다루고 한국의 동양사연구 현황도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문명의 시작과 전개를 본론으로 하여 중국최초의 제국, 남북조시대, 수당제국의 번영, 인도문명의 발생과 전개, 이슬람문화와 내륙아시아 사회, 일본전근대사회의 전개를 다룸으로써 인도와 이슬람, 일본을 포함시켰다는데 특징을 보이고 있다.

中韓으로 돌아와 송대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등을 다루고 등렉서점인 몽고족의 흥기를 거쳐 한민족의 복원인 명과 만주족의 중국지배를 비교사적으로 다루고 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근대에 들어오면서 서양문화의 전래가 같내는 사회주의 중국이 탄생까지 이르게 하는 역사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신선한 감각이 돋보인다.

전체의 전개방식이 증가하는 한글세대를 위해 내용을 가능한한 쉽게 쓰고 있으며, 각장마다 참고할수 있는 문헌을 제공하였고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도표를 실은것 또한 동양사 이해의 입체적인 서양적 분석들과 해석방법을 통해 개발되어 온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을 동양인의 방법과 의식을 통해 연구했다기 보다는 서양인의 시각에서 연구되어 온것도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그때문에 "지적 제국주의"란 말이 생겼고 이것은 극복하는것이 우리들의 학문적 과제의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다. 사이드가 "오리엔타리즘"에서 지적한 '동양의 신비'라는 서양인의 조어(造語)에서 탈피하여 우리것을 제대로 해석, 발굴하는 일이 이같은 저서를 통해 진일보되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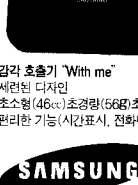
아쉬운 것이 있다면 시간적 전망을 위한 유보라고 생각하지만 중국공산당의 승리까지만 다루고 있는 점이 아쉽다고 하겠다. 그후의 중국현대사의 격동이 갖는 제의미를 생각해 앞으로 관을 거듭하면서 이의 보완을 기대한다.

이제 중국, 일본, 인도등의 제국가들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요즘, 그리고 국력이 월등이 성장한 우리들의 국제적 위상을 재정위하여 동양에서의 우리들의 올바른 위상을 찾는것도 또하나의 과제라 하겠다. 이제 동양사가 중국위주의 개념에서 동남아와 중동을 포함한 거세계적인 차원에서 논의될 시점이 된것 같고, 이책은 이정도 배려하고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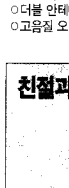
이 석 우
〈문리대 교수·사학〉

대학인의 필수품 "삐삐"

다정한 연인에게 「사랑의 오작교」
아르바이트 동반자 「리쿠르트」
캠퍼스를 누비는 「긴급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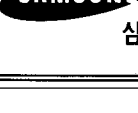


고감도 수신 "SRP-3300N"
○40개의 전화번호기억
○수신전화번호 보호기능
○Beep음/진동형 겸음



초고감도 휴대폰 "SH-400"
○휴대폰, 카폰 겸용기능
○더블 안테나 시스템
○고음질 오디오 회로 채용

신용판매
○신용분할판매 : 3~24회
○단, 3회 분할은 무이자



신감각 호출기 "With me"
○세련된 디자인
○초소형(46cc)초경량(56g)초박형(14㎜)
○편리한 기능(시간표시, 전화번호, 보호등)

친절과 신용의 삼성 무선기기 대리점
유영통신
☎ 269-6971, 272-4447

SAMSUNG 삼성전자

제3회 대학생 논문 현상공모

젊은이들의 뜨거운 가슴, 진지한 눈빛 속에 내일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1924년 창업한 이래 꾸준히 성장·발전해 온 삼양사가 금년에도 대학생 여러분들이 상아탑에서 연마한 학문적 이론을 마음껏 펼 수 있는 장을 마련, 제3회 대학생 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합니다. 높은 학구열과 진리 탐구의욕에 불타는 전국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참가대상
●전국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2. 논문주제
●근로자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노사관계 재정립 방안
●대학교육의 효율화를 위한 산학협동방안
●국제화에 따른 인재 양성 방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방안
●남북 경제 통일시의 대북사업화 방안

3. 응모요령
●원고는 타이프나 워드프로세서로 30~40매 내외로 작성 (※제출시 2~3매 내외의 요약문 첨부 요망)

4. 응모마감
●1993년 9월 3일(금)

5. 제출처
●당사 인사부 인사과 논문현상 공모 담당자
●우편접수시 당일자 소인분까지 유효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263 (주) 삼양사 인사부 인사과, 우편번호 : 110-725)

6. 당선작 발표
●1993년 10월 5일(화), 당선자 개별통지 및 월간지 게재

7. 시상내역
●최우수작 1편 : 상패 및 상금 300만원
●우 수 작 1편 : 상패 및 상금 100만원
●가 작 3편 : 상패 및 상금 50만원
●응모자 전원에게 고급기념품 제공

8. 기타
●응모자품은 다른 간행물이나 논문집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국내외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원전을 밝혀야 합니다.
●논문 응모시 반드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명기하고, 제학증명서 1부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접수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인사부 인사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TEL : 740-7155, 7157)

삼양

●주식회사 삼양사·化纖, 식품, 사료, 化成, 환경사업) ●삼양종기주식회사 ●선일포도당주식회사 ●삼남석유화학주식회사 ●삼양화성주식회사 ●신한제분주식회사 ●전북투자금융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양제디케어 ●디만 삼만 파이버 ●삼양그룹중앙연구소 ●삼양그룹의약연구소 ●삼양그룹선일연구소 ●양영회 ●수당장학회